

‘뉴 파워’ 56인

진보 정권 10년 이후,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광주·전남의 권력지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통합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하고, 새얼굴들이 18대 국회에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파워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호남출신 여권인사들도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정부

요직과 국회 등에 포진하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있고, 이미 힘 쓸림도 감지된다. 경제, 사회, 문화, 학계에서도 신진 세력들이 하나 둘씩 21세기를 이끌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이에 따라, 창사 56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뉴 파워 56인을 선정한 개개인의 업적과 앞으로의 기대를 소개한다.

광주 디자인 산업 이끌 전문가

디자인 김남훈(53)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자문위원,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추천디자이너, 광주의 디자인 산업을 이끌 전문가.

지역 연극계 활력 넣을 ‘유망주’

공연 이행원(41)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대표이자 연극 연출가. 2007 광주연극제 최우수작품상 등 수상. 올해 극단 전용 소극장 ‘씨드 아트홀’을 개관, 침체에 빠진 지역 연극계에 활력 불어넣을 유망주.

광주 발레 이끄는 신예 안무가

공연 김유미(43) 광주시립무용단 훈련장·발레 안무가. 전국무용계 대상·안무상·연기상 등 수상. 종결무용계 선두주자로 시립 단체로는 유일하게 발레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 발레계의 중추 부상.

지역 여성·인권 운동의 구심점

여성 안진(51) 지역 진보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노동부 고용평등위원 역임. 현 전남대 법학과(공익 인권법 전공) 교수. 지역 여성·인권 운동의 구심점 역할 기대.

포 문화수도 답론 형성 ‘평론가’

문화 김지원(43)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지역문화네트워크 사무국장 등 역임. 문화수도조성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지역의 각종 문화 관련 사업의 답론 형성에 기여.

장애인 권익·복지 증진 앞장

복지 문상필(42)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 동시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출신. ‘노인도 장애인도 임산부도 탈 수 있는 지하철 만들기’ 등을 기획하며 함께사는 공동체 복원에 주력.

해외 정벌 나선 여자 골프 지존

스포츠 신지애(20)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합평골프출신으로 지난해 국내 9개 대회에서 우승하며 국내 무대 평정. 올 시즌 JLPGA 요코하마 PRGR 레이디스컵 우승 등 세계적 골퍼로 성장.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 예약

스포츠 이용대(20) 한국배드민턴의 기대주. 화순실업고 출신으로 1990년대 박주봉-김동수, 2000년대 김동문-하태권 조를 이을 남자복식스타. 올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 금메달 예약.

PGA 7승 완도 출신 세계적 골퍼

스포츠 최경주(38) 완도 출신의 세계적 골퍼(세계랭킹 7위). 지난 2000년 미국프로골프(PGA)무대 데뷔. 2002 시즌 2승을 시작으로 미국프로골프 통산 7승과 통산 상금 1천700만달러(약160억원) 획득.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주역

스포츠 김철주(53) 조선대 체육학과 교수. 2013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위 자문위원. 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역임. 대구U대회 등과 IOC 총회 등 유치 실무를 담당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전문가.

세계대회 휩쓰는 바둑 대들보

바둑 이세돌(25) 한국기원 소속 프로 바둑 기사. 신안군 비금면 출신이며, 현재 한국기원 랭킹 1위. 최근 제12회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대회를 휩쓸고 있는 한국 바둑의 대들보.

기부활동 사랑받는 ‘국민여동생’

연예 문근영(21) 영화배우. 광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일반학부 재학중. ‘어린신부’ 등 각종 영화에 출연한 ‘국민 여동생’. 다양한 기부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펼치고 있는 한국 영화의 기대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3선 의원

국회의원 김효석(58) 16·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 3선 고지를 정복.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전문성과 성실성, 그리고 뛰어난 조정력으로 정치적 중립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

호남 차세대 정치지도자 기대

국회의원 박주선(58)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16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서울지검 특수 1·2부 부장검사 등 역임. ‘호남의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도약할 발판 마련.

정부 요직 두루 거친 초선 의원

국회의원 이용섭(55)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관세청장·국세청장·행정부 장관·건교부 장관 역임. 전남대 출신으로 중앙 무대에서 성공. 정치인으로서도 지역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

중앙 무대 지역정치의 구심점

국회의원 이낙연(56)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3선 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구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합민주당 대변인 역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지역 발전 이끄는 리더십 발휘.

여의도 입성 정치권 신진 리더

국회의원 조영택(57)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국무조정실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권의 신진 리더.

호남 정계 새로운 리더 부상

여권인사 정두언(51) 17·18대 국회의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주로 근무한 행정 관료 출신.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한나라당 내 소장파, 호남 정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

호남과 현 정부 가교 역할 기대

여권인사 추부길(52)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한나라당 정책기획특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정책기획팀장 역임.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호남과 현 정부 간 가교 역할 기대.

지역 현안 여권에 대변할 신진

여권인사 정용화(44) 한나라당 정책기획위원. 이명박 대통령 개인 싱크탱크 국제정책연구원(GSI) 정책전문위원 역임. 한나라당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안을 여권에 전달할 통로 역할 기대.

유일한 광주·전남 출신 국무위원

환경장관 이만희(62) 현 환경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환경부차관 역임. 조선대 출신으로 중앙관료로 성공. 이명박 정부 내 유일한 광주·전남 출신 국무위원.

지역발전 예산 확보의 새 통로

중앙관료 배국환(52)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 행자부 지방재정기획관,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등을 역임. 강진 출신으로 지역 발전 예산 확보의 새로운 통로.

광주 출신의 지식경제부 차관

중앙관료 이재훈(53) 지식경제부 차관.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산자부 2차관 역임. 광주 출신으로 5+2광역경제권 개발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 기대.

행정안전부 2차관 ‘인사 전문가’

중앙관료 정남준(52) 현 행정안전부 2차관. 행자부 공보관, 광주시 행정부시장,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 등 역임. 인사행정 전문가이며 기획통으로 선이 굵고 완만한 일처리로 정평.

국세청 2인자 세무관료의 리더

중앙관료 정병훈(54) 국세청 차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역임. 영광 출신으로 호남 출신 세무공무원의 리더로 역할 기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주역

지방자치 오현섭(58) 전남 여수시장. 전남도 행정·정부부지사,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광산구청장 역임.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3여 통합’을 모색하는 등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

나비축제 성공 이끈 스타 군수

지방자치 이석형(50) 합평군수.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3선 단체장. 변변한 관공자원도 없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합평 ‘나비축제’를 국내 대표적 생태축제로 만든 광주·전남지역 대표적 스타 군수.

행정에 경영마인드 접목 구청장

지방자치 전갑길(51) 광주시 광산구청장.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로 정치에 입문해 광주시의원, 16대 국회의원 역임.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공무원 조직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

